

새롭게 주목받는 나주 일대 고분

‘잃어버린 고대왕국’의 신비를 느낀다



국립나주박물관이 문을 열면서 나주 일대 고분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나주시는 북암리 고분전시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고분군의 관광 명소화 작업에 나섰다. 사진은 반남고분전경. <나주시제공>

지난해 11월 국립나주박물관 개관으로 나주의 ‘잃어버린 고대왕국’의 고분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반남 고분군 인근에 225억의 예산을 들여 건립된 나주박물관은 영산강과 나주지역 고대문화의 형성, 발전, 소멸의 과정을 한눈에 보여준다. 특히 고분 관련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나주 일대의 고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숨겨진 고대 왕국=넓은 갯벌과 해안을 간직한 전남지역은 수산물이 풍부했고, 평야지대로 이루어진 영산강 일대는 예로부터 천혜의 농사터였다. 이런 지리적 환경으로 일찍부터 영산강 일대에는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고 중국, 일본을 연결하는 바닷길의 중심에 위치해 이들 주변국들과 교류하며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켰다.

영산강 유역의 주된 지류인 나주를 여행하다 보면 거대한 고분군이 여러 곳에서 눈에 띈다. 나주지역에는 다시면 북암리 고분군(사적 제404호), 대안리 고분군(사적 제76호), 반남면 덕산리 고분군(사적 제76·77·78호) 등지에 고분 35기가 분포돼 있다. 이는 나주가 고대 문화의 중심지였다는 증거이다.

나주에 고분군은 신라의 경주고분군과 백제’의 공주, 부여고분군에 버금갈 규모이다. 하지만 누구의 무덤인지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나 문헌자료가 거의 없어 우

국립나주박물관 개관 이후 관람객 발길 줄이어

북암 고분군(사적 404호) 최초의 아파트형 복합묘제고분 금동신발·옹관묘 등 799점 출토 113억 투입 고분전시관 건립중

반남 고분군(사적 76·77·78호)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의 상징 국보 295호인 금동관 출토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리 고대사의 최대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이런 면에서 나주 다시면 북암리에 위치한 ‘북암리 고분군’은 영산강유역 토착세력과 백제와의 관계 및 일본과의 관계 등 지금까지 풀리지 않은 영산강유역 고대사를 규명하는데 결정적 자료를 제공하는 고분이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과거 안동 권씨 문중의 선산으로 관리되면서 도굴을 면했던 북암리 고분 3호분에서는 옹관묘, 황철석 석실묘, 석관 옹관묘 등 7종류의 묘제와 금동신발, 큰칼, 금귀고리 등 다양한 유물이 799점이나 출토됐다. 3호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형 복합 묘제고분으로 3세기에 해당하는 옹관



반남고분군에서 출토된 금동관.

묘에서부터 7세기에 황철석 석실묘까지 400여 년간에 걸친 삶에 묘제가 한 분구 안에서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다. 복합 묘제고분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확인될 정도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붉게 물든 쪽과 추수를 앞두고 누렇게 수놓은 들판 한가운데 자리 잡은 북암리 고분은 한 폭의 그림이다. 4기의 고분이 보존된 북암리 지역은 영산강의 분류를 낀 구릉지대로 원래는 고분이 3기가 더 있었으나 경지정리 과정에서 소실됐다. 또 고고학적 가치가 인정돼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추진되고 있는 나주 반남면 덕산리에 위치한 반남 고분군은 삼국시대

고분군으로 대형 옹관 고분 수십 기가 분포된 영산강 유역의 고대 문화의 상징이다.

들판 한가운데 위치해 인적이 드문 북암리 고분군은 달리 국립 나주박물관이 세워진 반남 고분군은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으로 북적이고 있다.

또 코스모스와 어울려져 잘 정돈된 고분은 단순한 흙 무덤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관광객을 유혹한다.

특히 마한 지배층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9호분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대형 옹관과 함께 최고 권력자의 위상을 보여주는 금동관(국보 제295호)과 금동신발이 출토돼 당시 사회에 반향을 일으켰다.

9호분은 분구의 직경이 34m, 높이 5m의 대형 고분으로 분구는 1차례 이상 추가로 쌓아올렸고, 돌널도 상하 2중으로 매달(埋納)됐다. 특히 분구의 둘레에는 일본 고분에서 발견되는 원통 모양의 토기가 세워져 있어 이 지역의 토착세력이 일본까지 교류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들의 근거로 마한의 소멸 시기는 6세기 초·중반으로 추정되며, 나주에 반남면과 다시면 일대가 마한의 마지막 근거지였음을 확인시켜준다.

한편 나주시는 사업비 113억원을 들여 북암리 고분군 인근에 ‘북암리 고분전시관’을 건립 중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국립나주박물관.



고분군에서 출토된 대형 옹관묘.



건립중인 북암리 고분전시관.

유사 업무부서 통폐합 등 조직개편 추진 강인규 시장 취임 100일...65개 공약과제 본격 실천

강인규(사진) 나주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민선 6기 조직개편을 비롯한 향후 시장운영 계획을 밝혔다. 나주시는 민선 6기 시장 정책비전과 혁신방향 등을 반영하는 조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구·정원을 간축 운영하고 ▲인력증원을 최소화해 일과성과 중심으로 조직 운영하되 ▲유사 중복 업무 처리부서 통폐합으로 일하는 조직을 구축할 계획이다.



▲나주복지재단 설립 ▲노인복지지원 확대 ▲오지마을 택시 운영 ▲산모 건강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자녀 안심보육 행복교육을 위해 ▲고등학교 무상급식 ▲인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조직개편안 최종안을 마련한 후 11월 초에 관련 법규제·개정 및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조례 공포, 내년 1월 인사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나주시는 강 시장 공약 가운데 6개 분야 65개 공약과제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실천에 들어갔다.

주요 공약과제 사업내용으로는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공동 육묘장 확대 ▲농업인마을 공동급식 확대 등을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소득금고기금 이용활성화 ▲‘3·3·3’ 행복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 50개 만들기 등이다.

또한 편안하고 행복한 시민 삶을 위해

재육성기금 100억원 조성 ▲지역인대 육성을 위한 교육기반 조성 ▲취약시간 안심귀기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찾고 싶은 문화관광을 위해 ▲나주목(牧) 문화예술단 설치 운영 ▲옛 나주잠사(蠶絲) 활용 문화예술공간 조성 ▲나주 관광상품 개발 ▲나주 천년 시민광장 조성 등이다. 이 밖에도 시민중심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시민소통위원회 구성 운영 ▲시민 감사관제 도입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보조금 지원사업 공개 및 전용카드 사용 등도 함께 추진된다. 강 시장은 “지난 100일 동안 ‘공공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시장’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면서 “지역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기 위해 포용과 배려, 화합의 시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나주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100억원 넘어서

나주시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이 100억원을 넘었다.

8월 나주시에 따르면 내년도 나주시 문화재 보수정비 총액예산은 118억4700만원으로, 전남 도내에서 가장 많은 액수다. 이 가운데 보물과 사적, 천연기념물, 중요민속문화재 등에 대한 국비지원은 93억3100만원 규모로 전체의 79%에 달한다.

내년 추진되는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나주목(牧) 관아 발굴조사와 토지매입(45억3500만원) ▲동점문밖 석당간 토지매입(29억8800만원) ▲오랑동 오지 주변정비·복구(19억9800만원) ▲불회사 대웅전 해체보수(14억원) ▲나주읍성 발굴조사(7억원) ▲동점문 및 남고문 방범사업(2억원) 등 총 10건이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나주경찰, 112신고 신속대응 체제 구축 박차

나주경찰이 각종 범죄와 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나주경찰서(서장 이유진)는 지난 6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각 과장을 비롯한 계장, 파출소장 등 간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속한 현장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한 ‘112 신고 총력 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주민들의 강력 범죄와 재

난범죄로부터 ‘골든 타임’을 확보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유진 서장은 “각종 범죄와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해 주민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광주일보 62주년 기념 광고. 상단에는 '예향'은 광주일보사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입니다. 중앙에는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2 광주일보. 하단에는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그리고 광고문의\_062-227-9600, 신문구독\_062-220-0551, 예방구독\_062-220-0550. 배경에는 가족이 함께 웃고 있는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다.

시내지역 전화번호 목록: 광천 366-8375, 광남 222-9440, 남부 6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민흥 267-4748, 백운 673-4698, 동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6-8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오치 266-7601, 오봉 522-7752, 우산 512-8116, 윤천 371-9818, 울곡 961-2339, 중양 222-1896, 중흥 224-8604, 진월 673-1600, 천단 973-2900, 충장 224-8212, 치평 376-6511, 풍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662

지방지사 전화번호 목록: 광산 062)944-0444, 남원시 063)633-9911, 군산시 063)467-2500, 순창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장성군 394-0400, 담양군 383-8116, 곡성군 362-8111, 구례군 782-4696, 영광군 351-0055, 함평군 324-8111, 광주광역시 336-4759(군) 335-5501(시), 신안군 278-8111, 목포시 276-9200, 무안군 452-8535, 남원시 283-1540, 영암군 471-1717, 장흥군 863-8822, 보성군 852-9646(보성) 857-0686(별교), 화순군 374-4423, 순천시 746-8111, 광양시 792-8111, 여수시 692-0997, 해남군 537-6767, 진도군 543-0100, 강진군 434-6830, 고흥군 842-2121, 완도군 554-6677